

비트겐슈타인과 문법

박 병 철(부산외국어대 교수)

【주제분류】 분석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문법, 문법적 명제, 논리

【요약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중기 이후의 저작에서 ‘문법’ 혹은 ‘문법적 탐구’라는 표현을 다양한 문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때 문법 개념은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문법을 단어의 사용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많은 문제들이 문법적 혼란에서 생겨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그러한 혼란을 제거하는 작업이야말로 가치 있는 철학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활동을 문법적 탐구라고 불렀으며, 그러한 문법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철학적 문제에 빛을 던져 주고, 세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이 논문은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전체 구조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문법 개념이 발전해 나왔는지를 살핍으로써 그가 말하는 문법적 탐구의 의미를 명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중기 이후의 저작에서 ‘문법’ 혹은 ‘문법적 탐구’라는 표현을 다양한 문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가 철학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문법 개념은 물론 ‘국어의 문법’ 또는 ‘영어의 문법’과 같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중기 저작 이후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문법 개념은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¹⁾ 그러

1) “언어에 있어서 한 단어의 사용은 그것의 의미이다. 문법은 그 언어에서 단어들의 사용을 기술한다.”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Grammar*

나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문법을 단어의 사용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특히 문법 개념을 철학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게 해 주는 일련의 주장을 접하게 되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문법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짐작케 된다. 이를테면, 그는 철학이 문법의 후견인으로서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²⁾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철학적 문제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탐구를 문법적 탐구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다.³⁾

이처럼 문법 개념이 그의 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는 느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단지 그의 필요에 따라 그러한 개념을 사용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문법 개념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까지의 쏟아져 나온 방대한 양의 비트겐슈타인 연구에 있어서도 문법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기대 이하의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⁴⁾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가 지배하는 그림이론,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문법이 지배하는 언어 게임이론으로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입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러한 도식화가 비트겐슈타인이 문법 개념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전체 구조에서 문법 개념이 발전되어 나온 맥락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문법 개념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문법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Oxford: Basil Blackwell, 1974), 60쪽. 이하 『문법』으로 약칭함.

2)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Remarks*(Oxford: Basil Blackwell, 1975), 54절. 이하 『언명』으로 표기함.

3)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Oxford: Basil Blackwell, 1953), 90절. 이하 『탐구』로 표기함.

4) 비트겐슈타인의 문법을 주요 주제로 다룬 많지 않은 연구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G.P. Baker and P.M.S. Hacker(1985), Debra Aidun(1986), Newton Garver(1967), Newton Garver(1996).

비트겐슈타인 연구에 조금이나마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논리 vs. 문법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문법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철학 논고』⁵⁾에서 소개된 논리 개념의 후예로 여겨진다. 실제로 논리 개념이 그림이론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논고』에서도 그는 하나의 명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통사적 규칙의 다른 이름으로 논리적 문법(logical gramma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⁶⁾ 따라서 논리와 문법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논고』의 시기에서부터 논리를 대신할 개념으로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어쨌든 문법 개념의 계보에서 논리가 먼저 선행한다고 할 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와 러셀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들 철학적 스승들과 차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견지하고 있는 논리에 대한 철학적 입장은 논리적 명제들의 진리성은 단지 기호들에 의해서만 알려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⁷⁾

이러한 입장은 『논고』의 철학적 자양분을 제공한 프레게와 러셀이 발전시킨 논리주의의 노선에 반하는 것이다. 공리들과 추리 규칙들을 이용하여 논리적 진리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학적 진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주의에 따르면 자명한 진리로서의 공리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적 진리이며, 그로부터 연역된 다른 논리적 진리들은 보다 기초적인 공리에 의존적인 명제들인 셈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명제들의 진리

5)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22/1961). 이하 『논고』로 약칭함.

6) 『논고』 3.325.

7) 『논고』 6.113.

성이 오로지 기호들에 의해서만 알려진다는 주장을 통해서 논리에서의 추론은 명제들 사이의 내적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논리적 명제는 동일한 레벨에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논리를 자명한 공리들로부터 정리와 같은 논리적 진리들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체계로 이해한 프레게-러셀의 입장과는 단절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논리적 추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p 가 q 로부터 도출된다면, “ q 로부터 p 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외의 정당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프레게와 러셀의 경우처럼 결론을 정당화해주는 추리규칙은 무의미하며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⁸⁾

이러한 입장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공리가 정리보다 더 기초적인 진리라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논리적 명제들은 그 위치에 있어서도 동등하며,⁹⁾ 논리적 진리에 대해서는 증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⁰⁾ 결국 그가 말하는 논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의 명제에 있어서 단어들의 조합이 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논리적 형식(logical form)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논리적 형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명제를 보는 것만으로 그 명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오해나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논리적 형식에 대한 이해는 결국 단어의 배열을 규정하는 통사적 규칙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의미의 가능성을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의 외면적 형식이 아니라 그 밑에 놓여있는 논리적 구조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중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오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색채 표상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계기로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론의 완결성을 포기하기에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원자론적 언어관을 포기하면서 총체주의적 언어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물론 이때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제시한 토롤로지로서의

8) 『논고』 5.132.

9) 『논고』 6.127.

10) 『논고』 6.1265.

논리관을 포기했는가 하는 것은 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다. 실제로 그런 입장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그의 저작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내가 T-F 기호에 의해 표현했던 ‘그리고’, ‘또는’, ‘아니다’ 등의 규칙은 이들 단어들의 문법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진리함수적 논리를 다양한 문법들의 일부로 보고 있는 듯하다.¹¹⁾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이 중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포괄적인 문법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색채 분석과 문법 개념의 전개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대부분의 다른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문법 개념 역시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케임브리지대의 철학 교수로서 직접 자신의 학생이었던 비트겐슈타인의 강의를 들었던 무어(G. E. Moore) 역시 비트겐슈타인이 당시 사용하던 ‘문법’ 또는 ‘문법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¹²⁾ 직접 비트겐슈타인의 강의를 들은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긴 개념을 오늘날 남겨진 자료들만으로 이해하는 것에 물론 어려움이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어가 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비트겐슈타인 저작을 만날 수 있으며, 문법 개념과 관련하여 중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의 변화까지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1) 『언명』, 111쪽.

12) 비트겐슈타인 사후 출간된 무어의 노트에는 그에 대한 당혹감이 나타난다: “나는 여전히 그[비트겐슈타인]가 ‘문법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어떠한 통상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G.E. Moore(1959), 69쪽.

물론 그러한 사정이 문법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테지만, 비트겐슈타인이 강의한 문법 개념에 대한 무어의 증언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문법에 대한 입장에 좀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논리라는 개념이 단일한 논리적 형식에 기초한 진리함수적 논리라는 뉘앙스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반면, 문법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논리 외에도 다양한 언어의 요소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제어하는 규칙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는 논리적 형식이 언어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하게 가능한 매개였지만, 1929년 이후의 비트겐슈타인은 색채, 음향, 수 등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의 문법 혹은 문법적 규칙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29년부터 1930년대 초반의 비트겐슈타인의 저작과 무어의 노트를 종합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문법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예는 바로 색채의 문제를 논하면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언명』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문법에 대한 일부 언급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순수 색채들이 꼭지점에 위치하는 색팔면체는 색채공간의 대략적인 표상을 제공하며,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닌 문법적 표상이다. 다른 한편, 이러 저러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붉은 잔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의 문제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는 아 프리오리하다. 우리는 후자를 실험에 의해 확립할 수 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¹³⁾

색팔면체는 문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붉으스름한 파랑을 말할 수는 있어도 붉으스름한 초록 등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¹⁴⁾

색채를 팔면체에 배열하는 것이 문법의 일부라는 것과 ‘붉으스름한 초록’이라는 표현은 문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무어의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다.¹⁵⁾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논고』의 진리함수론의 불완결성을

13) 『언명』, 51-2쪽.

14) 『언명』, 75쪽.

15) G.E. Moore, “Wittgenstein’s Lectures, 1930-33”, 69쪽.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의 논리 개념에서 문법으로 그의 생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논고』 6.3751에서 제기된 색채의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는 결국 초록과 빨강이 시야의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표상이 진리함수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진리함수론의 완결성을 포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법 개념의 등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원래 『논고』의 아이디어에서는 순전히 논리적 표기법만을 가지고 그러한 양립불가능성에 대한 명제를 참인 것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논고』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논리적 표기법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제 그러한 색채간의 양립가능성과 불가능성에 관한 언어적 표현을 규정하는 것으로 논리 대신 문법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1929년에 씌어진 노트북을 토대로 편집된 『언명』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색채 표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나름대로의 색채 표상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가 말하는 문법 개념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는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을 원형으로 배열한 원형 색주기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한 배열에 따른 다음 문장들의 차이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1) 주황은 빨강과 노랑 사이에 위치한다.
- (2) 노랑은 빨강과 초록 사이에 위치한다.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 위의 (1)과 (2)에서 표면적인 어법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1)과 (2)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이에 위치한다’는 표현은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문법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강과 노랑을 혼합하면 주황을 얻게 되지만, 빨강과 초록을 혼합할 경우 노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1)은 (1)’와 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2)는 (2)’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1)’ 빨강과 노랑을 혼합하면 주황이 된다.
- (2)’ 빨강과 초록을 혼합하면 노랑이 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1)과 (2)에서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적 기능에서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이 표현은 (1)에서는 다분히 두 색의 혼합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지만, (2)에서는 그저 섞여진 두 개의 색채들에 대해 공통적인 단순한 구성요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이 색채 문법을 거론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논고』에서처럼 단일한 논리적 형식에만 집착한다면, 지금 든 예에서 본 ‘사이에 위치한다’와 같은 표현이 색채 현상에 적용될 때 지니게 되는 문법적 다양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4. 다양한 표상체계와 문법

결국 중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실과 현상을 재현하는 데 쓰이는가에 따라 상이한 문법의 규칙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점을 간과할 때 철학의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그러한 문법적 차이는 근본적으로 논리의 개념이 발전 및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물리적인 것과의 대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색채 문법의 규칙 역시 논리적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의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들의 물리적 가능성이나 불가능성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청색채』 56쪽에 등장하는 다음의 예문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초록과 파랑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4)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을 수 없다.

(5) 3×18인치는 3피트가 아니다.

위 예문에서 (3)의 경우 한 장소에 두 개의 색채가 동시에 위치할 수 없는 이유는 색채 현상이 가진 논리적(혹은 문법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

16) 『언명』, 276-8쪽.

이다. 색채간의 양립불가능성을 알기 위해 경험적 테스트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마치 (5)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색채 현상에 적용하고 있는 문법의 개념은 『논고』의 논리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논리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확대되었을 뿐이다.

반면 (4)의 경우 하나의 벤치에 몇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가는 경험적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가능성의 문제이다. 『논고』에서 유일한 가능성은 논리적 가능성뿐이라고 주장했던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문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물리적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표현에서 논리적 가능성과 물리적 가능성은 문법적으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없다)’와 같은 동일한 표현양식으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기 비트겐슈타인의 문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림이론이 말하듯이 단일한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는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가 세계를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아니면 흙집 없는 거울처럼 비출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한 다양한 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 개념의 경우도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다. 그는 일반적으로 기하학이나 과학에서 사용하는 공간 개념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개념과 같은 것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두 경우 모두 공간이라는 단어를 적용함으로써 중대한 철학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물리적(혹은 유클리드적) 공간과 시각 공간을 구분하고, 두 공간을 지배하는 문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두 공간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그러한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직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시각 공간에 주어진 직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는 없다. 시각 공간에서는 그저 눈대중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음의 (6), (7)에서 사용된 ‘정확히’이라는 단어 중 하나는 무의미하다고 한다.

(6) 종이에 정확히 지름 5cm의 원을 그려라.

(7) 지금 내 눈에는 정확히 지름 5cm의 원이 보인다.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물리적 공간에 원을 그리라고 주문하는 (6)의 경우 우리는 물론 정확한 측정에 의한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7)에서처럼 내 눈에 보이는 원의 이미지가 몇 센티미터의 지름을 갖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시각 경험에서 그러한 정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한다. 그는 ‘정확한’이라는 단어를 지배하는 문법은 다분히 기하학적이며 물리적인 것이며, 측정이 불가능한 시각 공간에 그러한 단어를 적용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적법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문장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다.¹⁷⁾

그것은 마치 “이 색깔은 저 색깔보다 반음이 높다”라는 문장이 무의미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색채와 음향의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공간과 시각 공간도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각의 단어를 지배하는 문법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논리 개념의 후예로서 비트겐슈타인이 문법이라는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단어를 지배하는 다양한 문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가 말하는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법이란 단어의 사용

17) 『언명』, 269-70쪽.

과 그 사용을 지배하는 사용 규칙이라는 것이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때, 문법은 이제 말이 의미 있도록 해주는 바를 규정하는 규칙인 셈이다. 『논고』에서와 같은 정적인 통사적 규칙으로서의 논리 개념에서 단어들의 구체적인 사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표상과 무의미한 표상을 규정하는 문법 개념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나마 불충분하게 정리해 본 중기 비트겐슈타인의 문법에 대한 생각이 비트겐슈타인이 문법이라는 용어를 통해 말하고자 한 내용의 전부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먼저 일부 중기 저작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현상학은 문법이다”라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언급을 하고 있으며, 또 그와는 별도로 일부 후기 저작에서는 문법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언어게임론의 발전에 따라 중기 저작의 그것과 수정된 형태로 좀더 포괄적으로 발전한 경향이 있다.¹⁸⁾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5. 현상학과 문법

앞에서 보았듯이 철학의 전환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적어도 새로 발전시킨 문법 개념이 철학의 문제들, 특히 『논고』의 체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법 개념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현상학의 아이디어가 같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계의 모습을 언어가 어떻게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그러한 고민은 색채나 음향, 수, 공간 등과 같은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의 다양한 문법을 잘 파악해 내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언어로 표상해 내는 방법에 대해 고

18) 그 일부가 『철학적 문법』이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출판된 「대타자본」(The Big Typescript)의 한 챕터는 “현상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절은 “현상학은 문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다.

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색채의 경우 그것을 표상하는 방식에는 전자기 파장에 따른 물리적 표상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와는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위의 제3절의 예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 (1) 주황은 빨강과 노랑 사이에 위치한다.
- (2) 노랑은 빨강과 초록 사이에 위치한다.

- (1)' 빨강과 노랑을 혼합하면 주황이 된다.
- (2)' 빨강과 초록을 혼합하면 노랑이 된다.

(1)과 (2)는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스펙트럼에 의한 색채 배열에 따라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표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 분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1)'와 (2)'에서 보듯이 우리가 실제로 물감을 이용하여 여러 색들을 섞다보면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색채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분석만으로는 적절하게 표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 분석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의 색채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법적인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분석에 기초한 (1), (2)의 경우 '사이에 있다'는 표현은 그저 스펙트럼의 배열에서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며 결코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이에 있다'는 표현은 색의 혼합에 의해 드러나는 색채 현상에 적용할 때는 실제 현상에 들어맞지 않는 (2)'와 같은 무의미한 표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물리적 분석이 그러한 문법적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과학이 자연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서 과학이 간과해 버리는 그러한 차이를 현상의 다양성을 직접 연구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로 그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이름하여 현상학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⁹⁾ 물론 현상학적 언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색채 현상에 대해 왜곡 없이 직접적으로 표상해 내는

언어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현상학적 표상방식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다양한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문법을 알아내면 현상학적 표상방식을 찾아낸 것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명제는, 그것이 어떤 표현법으로 씌어지거나 표현되건, 그 문법이 완전히 명료화될 때 완전히 논리적으로 분석된다.

나는 더 이상 현상학적 언어, 또는 내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일차 언어’를 마음속에 나의 목표로 가지지 않는다.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언어에서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이다.

『논고』에서 드러난 색채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1929년에 쓴 한 논문에서 색채 현상에 대한 궁극적 분석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⁰⁾ 이것은 곧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현상학적인 표상방식을 찾아내려는 시도로 이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상학이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어적으로 표상해 내는 데 있어서 논리에서 문법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에 비트겐슈타인이 모색했던 방법의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결국 현상학적 언어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문법이 그러한 언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현상학의 중요성

19) 이러한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저작인 『색채론』에도 등장한다. 그는 “여기서 과학과 논리학의 중간에 있는 무엇인 현상학을 믿으려고 하는 유혹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다. Ludwig Wittgenstein, *Remarks on Colour*(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II-3.

20) Ludwig Wittgenstein,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9* (1929); reprinted in *Philosophical Occasions: 1912-1951*(Indianapolis: Hackett, 1993).

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가 현상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한 언급은 대체적으로 물리학과 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그러한 대비와 더불어 현상학은 물리학이 말하는 이론이나 법칙과 달리 문법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물리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만족할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 (1), (2)와 같이 색채 현상의 특정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반면, 현상학은 설명보다는 현상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법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아직 그러한 문법을 완벽하게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문법의 후견인으로서 철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문법을 통해서 언어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세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은 세계의 본질의 그림이다. 그리고 문법의 후견인으로서의 철학은 언어의 명제들에서가 아니라 기호들의 무의미한 조합을 배제시키는 언어의 규칙들에서 실로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문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때 철학적 혼란은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 이를테면 그 경우 여전히 특정 현상에 대한 문법적 혼란에 노출되는 것인데, 앞 절에서 소개한 예 (6), (7)에서와 같이 물리적 공간에 적용되는 어휘를 시각 공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6) 종이에 정확히 지름 5cm의 원을 그려라.

(7) 지금 내 눈에는 정확히 지름 5cm의 원이 보인다.

‘정확히’라는 표현은 (6)에서와 같이 물리적이고 기하학적 공간에서는 완벽한 어휘가 될 수 있지만, (7)과 같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영역인 시각 공간에는 의미 있게 적용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물리적 공간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무조건 시각 공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21) 『언명』 54절.

이다. 그러한 혼란이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어가 여전히 세계를 표상해 내는 훌륭한 도구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상적 세계를 표상하는 현상학적 언어를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물리적 표상방식을 그대로 놔둔 채 문법적인 혼란만 제거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가 현상학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상학은 문법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논고』에서 시작된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고민은 논리에서 출발하여 현상학적 언어를 거쳐 문법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6. 문법과 문법적 명제의 위치

비트겐슈타인의 문법 개념은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다양한 표상 대상에 대해 다양한 표상 방식, 즉 다양한 문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트겐슈타인은 유독 특정 명제들에 대해 문법적 명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별하면서 그러한 명제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문법적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문법 자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문법은 의미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논리적 명제의 후예로 여겨지는 문법적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 명제의 폭은 단순히 논리적 명제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다. 위에서 이미 예로 들었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 (3) 초록과 파랑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 (4)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을 수 없다.
- (5) 3×18인치는 3피트가 아니다.

이들 문장들 중에서 (4)는 물리적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문장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3) 및 (5)와 비교하고 있다. 논리적

혹은 문법적 분석만으로는 과연 세 사람이 그 벤치에 앉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3)의 경우 ‘할 수 있다(없다)’는 명백히 문법적(논리적)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²²⁾ 상식적으로 우리는 색채에 관한 문장이 경험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이 문법적 혹은 논리적 개념과 관계되어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단호해 보인다. 왜냐하면 (3)은 그야말로 경험에 의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4)와 다른 경우이며, 오히려 문법적 규칙이며 하나의 논리적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5)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즉 비트겐슈타인은 (5)와 같이 수학적 명제와 논리적 명제를 문법적 명제로 보고 있음은 물론 (3)과 같이 경험적 내용을 포함한 특정한 문장 역시 문법적 명제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험적 명제로 분류되지만 역시 비트겐슈타인이 문법적 명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장들의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8) 나는 당신의 치통을 느낄 수 없다.²⁴⁾

(9) 모든 막대는 길이가 있다.²⁵⁾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문법적 명제라고 지목한 이들 문장 (3), (8), (9)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 문장이 경험적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참이 되는 문장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논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치통을 느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길이가 없는 막대의 존재 역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논리적’이라는 말은 물론 진리함수적 논리나 통사적 규칙으로서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은

22) *Ludwig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ed. Brian McGuinness (Oxford: Basil Blackwell, 1980), 67쪽.

23) 『청색책』, 56쪽.

24) 『청색책』, 49쪽.

25) 『탐구』 251절.

아니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8)과 (9)가 거 것이 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문법적 명제라고 부르는 문장들의 성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른바 문법의 특성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결국 문법은 적어도 특정한 사실의 구조가 그러한 사실의 표상에 있어서 의미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은 마치 『논고』에서 공유된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명제와 사실이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의미가 규정된 것과 유사한 의미에서 사실의 구조가 의미의 가능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경험적 명제의 일부를 논리적(수학적) 명제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의 논리 개념의 폭을 확장시켜 문법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의 구조가 의미의 가능성을 규정한다는 것은 분명 과거 그가 『논고』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명제가 실재를 충실히 반영 혹은 표상하는 식의 엄격한 대응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명제와 실재가 공유하는 것은 가능성의 폭일 뿐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중기 저작에서부터 후기 저작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문법(의 규칙)이 임의적(arbitrary)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즉 문법이 임의적이라는 것은 명제와 실재의 엄격한 대응 관계와 달리 문법이 실재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²⁷⁾ 결국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이었던 언어가 실재를 반영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영의 구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저히 느슨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언어게임 아이디어의 발전과 관계된 것으로 언어와 세계는 반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의 기초는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는 언어게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논리학과 수학의 명제들

26) 『탐구』 497, 520절.

27) 『문법』, 184, 185, 246쪽.

로 이루어지는 분석명제와 사실을 반영하는 명제들로 이루어지는 종합명제의 뚜렷한 구분 아래 단일한 논리가 이 관계에서 명제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생각은 무척 느슨해지고, 문법은 임의적 성격을 띠게 되고 문법적 명제의 영역 또한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저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가 『확실성에 관하여』²⁸⁾나 『색채론』에서 과거에는 문법적 명제 또는 규칙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문장들을 그러한 규칙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비트겐슈타인은 “나에게는 손이 있다”라든가 “세계는 존재한다” 또는 “지구는 과거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와 같은 문장들은 물론 심지어는 “물은 100℃에서 끓는다”, “지구는 둥글다”²⁹⁾와 같은 문장들은 경험적 명제임에도 의심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보면서 마치 위에서 예로 들었던 (3), (8), (9)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문법적 명제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규칙과 경험적 명제는 서로 융합되는 것인가?³⁰⁾

하지만 논리학의 명제와 경험적 명제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뚜렷함의 결여는 규칙과 경험적 명제 사이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³¹⁾

위의 첫째 인용문에서 규칙은 이른바 문법적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학의 명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그렇게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는 손이 있다”와 같은 경험적 명제들 역시 문법적 명제의 범

28) Ludwig Wittgenstein, *On Certainty*(Oxford: Basil Blackwell, 1969), 292절. 이하 『확실성』으로 약칭함.

29) 『확실성』 299절.

30) 『확실성』 309절.

31) 『확실성』 319절.

32) 『확실성』 319, 519절.

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알려지는 명제이지만 그러한 명제가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때 분명 논리학의 명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이들 명제들이 문법적 명제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보듯이 일면 어느 정도 망설인다는 느낌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리학의 명제와 경험적 명제 사이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히 하고 있다.³³⁾

『확실성』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의심으로부터 면제된 확실한 명제들을 펀더멘탈(the fundamen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펀더멘탈은 이들 논리학, 수학적 명제들과 더불어 어떠한 정당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언어게임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망설임 속에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펀더멘탈은 그 성격상 그가 말해온 문법적 명제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철학적 문법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있어서 그 철학적 여정의 진행에 따라 문법 개념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그것은 논리적 통사(논리적 문법)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중기에 접어들면서 특정한 단어들의 배열을 허용하거나 배제하는 규칙과 같은 의미로서 문법 개념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은 논리적 문법과 달리 전적으로 사실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임의성 혹은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법 자체는 적절한 표상의 의미성과 무의미성에 대한 가능성의 폭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참 또는 거짓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점에서 문법은 설명이 아니라 기술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문법을 철학적 문법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33) 이 점은 『색채론』 I-32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언어의 문법과 구분 될 뿐 아니라 매우 진지한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많은 문제들이 문법적 혼란에서 생겨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그러한 혼란을 제거하는 작업이야말로 가치 있는 철학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활동을 문법적 탐구라고 불렀으며, 앞서 이 글을 들어가면서 인용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문법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철학적 문제에 빛을 던져주고, 세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문법은 철학적 문법인 셈이며, 그의 철학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참고문헌

- 박병철(1998), 「비트겐슈타인의 색채관」, 『철학』 제54집, 한국철학회.
- _____(2000), 「비트겐슈타인과 철학」, 『철학연구』 제51집, 철학연구회.
- _____(2001), 「지식과 확실성」, 『철학적 분석』 제4집, 한국분석철학회.
- Aidun, Debra(1986), "Wittgenstein on Grammatical Proposition," in Stuart Shanker ed.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s*, vol. 2, London: Croom Helm.
- Baker, G.P. and P.M.S. Hacker(1985), *Wittgenstein: Rules, Grammar and Necessity*, Oxford: Basil Blackwell.
- Garver, Newton(1967), "Analyticity and Grammar," *The Monist* 51.
- _____(1996), "Philosophy as Grammar," in Hans Sluga and David G. Stern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uinness, Brian ed.(1980), *Ludwig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Oxford: Basil Blackwell.
- Moore, G.E.(1959), "Wittgenstein's Lectures in 1930-33," in G.E. Moore, *Philosophical Papers*, London: Allen & Unwin; reprinted in Ludwig Wittgenstein(1993).
- Wittgenstein, Ludwig(1929),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9*; reprinted in *Philosophical Occasions: 1912-1951* (Indianapolis: Hackett, 1993).
- _____(1922/196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1975), *Philosophical Remark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1974), *Philosophical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1958), *The Blue and the Brown Book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_____ (1969), *On Certainty*, Oxford: Basil Blackwell.

_____ (1977), *Remarks on Colou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____ (1993), *Philosophical Occasions, 1912-1951*, Indianapolis: Hackett.